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4월 25일 강의 계획서

## 광야 유혹 사건

### B. 광야 유혹 사건에 대한 풀이

#### 1. 첫 번째 유혹

악마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다.(마태 4,3-4)

(3) 세 번의 유혹을 모두 성경(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물리치심

첫 번째 유혹: 신명 8,3

두 번째 유혹: 신명 6,16

세 번째 유혹: 신명 6,13

#### 2. 두 번째 유혹

그 때에 악마는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아래로 몸을 던지시오. '하느님께서 그대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라' 또한 '그들은 손으로 그대를 받들어 그대의 발이 돌에 다치지 않게 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떠보지 말라' 고도 기록되어 있다."(마태 4,5-7)

(1) 굳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한 이유는

(2) 성경(시편 91장)을 이용해서 하느님의 뜻인 양 가장함

(3) 믿음을 빙자한 유혹

(4)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5) 이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① 명성에 대한 경고

②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context) 안에서 읽어야

- 그 말씀이 속해 있는 구절 그리고 문단과 함께

- 장과 함께

- 책과 함께

- 성경 전체와 함께

③ 신앙을 빙자해서 하느님을 조종하지 말아야

### 3. 세 번째 유혹

악마는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그분에게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마태 4,8-10)

(1) 세 번째 유혹에서 악마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2) 예수님의 응답

(3) 예수님의 입에서 두 차례 나온 ‘사탄아, 물러가라’

### 4.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악마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루카 4.13)

### 5. 유혹의 산에 세워진 수도원

## C. 우리 자신을 위한 영적 적용

### 1.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1) 주님의 말씀을 갖고서 유혹을 물리쳐야

(2) 성경의 주요 말씀들을 평소 암송해놓아야

(3) 꼭 긴 성경말씀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4) 고민이나 유혹 중에 있을 때 성경을 옆에다 두고 보라

##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구절>

- 사람에게 위축되어 있을 때 다음 성경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시편 56,12)
- 과거에 매여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
- 피곤해서 지쳐 있거나, 풀이 죽어 있을 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이사 40,31)
- 재정적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마태 6,26)
- 걱정거리가 있을 때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마태 6,27)
- 약습이나 어두운 성향과 씨름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 위험 중에 있을 때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시편 91,2)
- 두렵거나 외로울 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  
이어라.(시편 23,1-3)

- 하느님이 멀리 느껴질 때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  
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  
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시편 139,1-3)

## **성 이냐시오가 제시하는 최선의 선택(식별) 방법**

(1) 초연함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 성령님께서 식별 과정 중에  
함께 하시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2) 최선의 선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3) 식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도의 자료들을 구한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 따라오는 장점  
은 무엇인지 또 단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다.

(4)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다.

###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째, 내 자신이 죽어서 관속에 있다고 가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간 그 때  
내가 무엇을 선택했어야 올 바랐는지를 물어 보라.

둘째,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그에게 어떻게 도움말을 줄지를 생각해보라.

(6) 식별 과정의 마지막은 내가 어떤 선택을 드디어 내린 다음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를 눈여겨 본다.

# 갈릴래아에서의 복음운동(공생활/사역) 시작

## 1. 갈릴래아에서 복음운동을 시작하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 즈블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5-16)

- (1) 예수님이 갈릴래아로 가신 이유
- (2)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 이민족의 지방/영역

갈릴(גליל): 지방, 영역

- (3) 즈블룬 땅과 납탈리 땅은 이스라엘 12 부족의 땅이 아닌가?
- (4) 갈릴래아 지역이 '이민족의 땅'으로 불린 이유

## 2. 갈릴래아의 도시와 마을들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city)과 마을(village)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마태 9,35)

- ① 가장 큰 도시들(순서대로): 세포리스, 티베리아 그리고 막달라
- ② 갈릴래아 호수와 호수 주변의 마을과 도시들
- ③ 복음 운동의 근거지였던 카파르나움
- ④ 로마 제국 시대 폴리스(도시)의 조건
- ⑤ 예수님이 카파르나움을 복음 운동의 거점으로 삼은 두 가지 이유
  - 교통의 요충지라서
  - 베드로의 집을 근거지로 삼고자

## 3. 갈릴래아의 회당들에서 복음을 선포하심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마르 1,39)

- ①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심
- ② 나중에는 회당에서 배척을 받으심

# 첫 제자들을 부르심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쨌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마르 1,14-20)

## A. 부르심(소명)

### 1. 대뜸 제시된 것처럼 보이는 부르심

(1) 부르심은 철저히 주님의 전권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보이코자

### 2. 부르심의 특징

- (1) “시몬과 안드레아를 보시고”
- (2)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는다
- (3)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 3. 부르심의 자리

(1) 피와 땀이 얼룩진 삶의 자리에서

## B. 부르심의 내용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

### 1. "나를 따라오너라."

- (1) "나를 따라오너라"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교의 본질
- (2) "나를 따라오너라"를 통해서 본 제자직분(제자도)의 본질

## 2.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 (1) 만일 베드로의 직업이 농부였다면, 또는 목수였다면...
- (2) 섭리적 부르심
  - 일차적(一次的) 부르심: 하느님의 자녀로 불림 받음
  - 이차적(二次的) 부르심: 하늘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불림 받음
  - 섭리적 부르심은 이차적 부르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섭리적 부르심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다
- (3) 진정한 소명의 특성
  - ① 타는 마음이 있는가?
  - ② 기쁨을 느끼는가?
    - ◆ 카리스마(χάρισμα)와 카라(χαρά)
  - ③ 보람을 갖는가?